

한 장소에 세 개의 광장

- 폴리 스퀘어 플라자의 변화 -

심지수 · 배정환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I. 머리말

조경 설계에서 장소에 대한 연구가 물리적 특성에 한정된 이유는 장소에 관한 비교 연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 번 조성된 공원은 다른 공원으로 바뀔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장소의 변화를 비교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장소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각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설계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 지난 45년 동안 네 번에 걸쳐 광장의 모습이 바뀌었고, 현재 다섯 번째 광장으로의 변화를 앞둔 장소가 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연방정부 건물 앞 광장인 폴리 스퀘어 플라자(Foley Square Plaza)¹⁾는 광장이 처음 조성된 1967년부터 2012년까지 총 다섯 회에 걸쳐 광장이 변화했다. 이 장소는 4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잦은 변화를 한 예외적인 광장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 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조경사는 물론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 스퀘어 플라자가 '장소'라는 중요한 인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조각가와 조경가들의 손을 거쳐 계속 변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 장소에 구현된 세 개의 광장 각각을 살펴보고 한 광장에서 다음 광장으로 변화한 원인과 결과를 통해 조경 설계적 시사점을 구해 보고자 한다.

II. 한 장소: 폴리 스퀘어 플라자의 변천

폴리 스퀘어 플라자는 맨하튼에 위치한 제이콥 케이 자비츠 페더럴 빌딩(Jacob K. Javits Building, 이하 '제이콥 자비츠 빌딩'이라고 한다)과 제임스 엘 왓슨 미국 국제 무역 법원 빌딩(James L. Watson U. 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Building, 이하 '제임스 왓슨 빌딩'이라고 한다), 그리고 워스거리(Worth Street), 듀안 거리(Duane Street)로 둘러싸인 미국 연방 정부(U. 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소유의 광장이다. 제이콥 자비츠 빌딩은 총 41층으로 1967년 완공되었고, 제임스 왓슨 빌딩은 8층 규모의 빌딩으로 4층의 연결통로를 통해 제이콥 자비츠 빌딩과 연결된다.

건물이 완공된 1967년에는 공공 예술에 관한 정책의 잦은 변화와 물가의 상승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광장을 조성할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1979년 아트-인-아키텍처 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의 일환으로 조성 기금이 마련되었다. 작가로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가 선정된 이후 1981년 그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가 제작되었지만 설치가 완료되기 전부터 시민들은 해당 작품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1989년 <기울어진 호>는 철거되었다. 작품이 철거된 후 광장에는 플랜트와 의자가 놓였고 이후 1997년 마사 슈왈츠(Martha Schwartz)의 제이콥 자비츠 플라자(Jacob Javits Plaza)로 다시 조성되었다. 현재 폴리 스퀘어 플라자는 2011년 공모를 통해 당선된 마이클 반 발켄버그(Michael Van Valkenburgh)의 <페더럴 플라자(Federal Plaza)>으로 변경을 앞두고 있다.

III. 세 개의 광장

1.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

아트-인-아키텍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치된 <기울어진 호>는 제이콥 자비츠 빌딩의 건축가인 '알프레드 이스턴 푸어(Alfred Easton Poor)의 조언²⁾과 '큰 규모의 조각을 위한 연방 정부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였다(Serra et al, 1991)³⁾.

그 결과 1981년, 높이 12피트, 길이 120피트, 2인치 두께의 녹슨 코르텐 스틸로 만들어진 <기울어진 호>가 광장 중간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치되었다. 해당 작품은 광장의 입구인 워스 거리에서 제이콥 자비츠 빌딩과 제임스 왓슨 빌딩의 입구 사이에 비스듬히 설치되어 이용자가 길에서 빌딩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피해 돌아가야 했다.

리처드 세라는 연방 정부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이용자가 작품을 통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통행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차단의 감정을 느끼도록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결국 대중은 작품이 주는 불쾌감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대중의 공감을 잃은 리처드 세라는 작품의 이전을 논하는 법정에서 그의 작품에 대해 "기울어진 호는 장소 특정적 작품이어서 작품의 이전은 곧 작품의 파괴와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공공장소를 사유화 한다"



그림 1.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

는 판사의 판결(Serra *et al.*, 1991)에 따라 <기울어진 호>는 1989년 철거된다.

2. 마사 슈왈츠의 <제이콥 자비츠 플라자>

<기울어진 호>가 철거된 이후 폴리 스퀘어 플라자에는 마사 슈왈츠의 <자비츠 플라자>가 조성되었다. 마사 슈왈츠의 광장은 단단하고 무겁고 어두운 <기울어진 호>와 달리 밝은 색의 곡선이 사용되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마사 슈왈츠에 따르면, 그의 광장은 17세기 프랑스 자수화단을 모티브로 한 소용돌이치는 벤치, 프랑스식 정원의 마운드, 움스टे드를 기념하기 위한 뉴욕 공원의 시설물에서 차용한 디자인을 사용한 광장이다(Schwartz and Richardson, 2004).

광장에서 눈에 띄는 밝은 초록색의 곡선 의자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의자"(Schwartz and Richardson, 2004)이지만 실제 관찰 결과, "광장 이용자 중 극히 일부인 3~8%만이 사용하여 비효율적이며 빈 의자의 광경이 오히려 광장을 황량하게 한다는 비판"(Marcus, 2000)을 받기도 했다.



그림 2. 마사 슈왈츠의 <제이콥 자비츠 플라자>



그림 3. 마이클 반 발켄버그의 <페더럴 플라자>

3. 마이클 반 발켄버그의 <페더럴 플라자>

2011년 광장은 방수 공사를 위해 전체를 들어내야 했고, 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0년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마이클 반 발켄버그의 광장으로 변경이 결정되어 현재 공사 중이다.

마이클 반 발켄버그에 따르면 폴리 스퀘어 플라자는 빌딩으로 진입하는 오픈 된 공간이면서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 공원이다. 때문에 마이클 반 발켄버그는 공공장소와 하나의 도시 경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균형을 맞추면서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의 광장은 광장 밖에서 광장으로 진입하면서 좀 더 자연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이콥 자비츠 빌딩, 제임스 왓슨 빌딩 입구와 광장의 동선을 부드럽게 연결하도록 지형을 변경하였다. 제이콥 자비츠 빌딩에서 모티브를 얻고 도시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온 대리석을 활용하여 바닥 포장 패턴을 결정하였다. 링 형태로 배식될 목련은 겨울철 광장 이용자들을 북서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름철에 필요한 그늘을 제공한다. 분수는 광장의 생동적인 분위기와 대리석 의자 등과 함께 광장이 비어 있더라도 광장에 생동감을 불어 넣을 것이다.

그의 광장은 지금까지의 광장과 비교했을 때 광장의 이용자가 광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소가 갖는 특성을 가장 잘 분석하고 설계에 적용하다. 이로 인해 오히려 지금까지 이 장소의 특별했던 역사를 망각하고 평범한 도시 내 광장으로 회귀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IV. 조경에서의 시사점

1. 조경에서의 장소 특정성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은 특정 장소가 다른 장소와 구

분되는 특성으로, 장소 특정적 작품이란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장소를 이동할 경우 작품이 갖는 가치가 변경되는 작품을 의미한다. 장소 특정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장소 특정적 작품을 “작품이 설치된 장소에 의미와 형식을 기대고 있는 작품”(문희숙, 2002: 57)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소 특정성을 사회 정치적 의미로 해석한 권미원에 따르면, 장소 특정성은 단지 미술의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미술과 공간의 정치성을 내포하는 하나의 기호가 되며, 장소 특정적 미술은 ‘차이’가 사라진 일률적 도시 환경에 ‘구별’을 부여하는 도구로, 장소 차별성과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용한 공공 장치로 기능한다(Kwon, 1997).

리처드 세라는 <기울어진 호>가 장소 특정적 작품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장소 특정성은 위의 내용과는 다르다. 그는 장소의 맥락을 작품에 반영했다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장소를 재정의하여 작품으로 인해 장소가 가진 의미를 변경(Levine, 2002)하고자 하였다. <기울어진 호>는 작품이 장소의 성격보다 우선시되어 장소가 가진 성격을 변화시키는 관점에서의 장소 특정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마사 슈왈츠의 자비츠 플라자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장소가 갖는 특성의 균형을 비교적 잘 맞춘 작품이다. 마사 슈왈츠는 장소에 그녀의 작품을 엮었을 뿐 작품으로 인해 장소가 가진 특성을 바꾸고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장소가 갖는 특성 또한 디자인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마이클 반 발켄버그는 미기후나 역사적 모티브 등 해당 장소만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도입하였다.

조경에서의 장소 특정성은 리처드 세라의 작품처럼 작품으로 장소가 갖는 특성을 변경하고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하고, 마사 슈왈츠의 경우처럼 장소의 특성이 작품에 반영되지 않아서도 안 된다. 조경에서 사이트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트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이용자의 잠재적 니즈 충족을 위해서는 마이클 반 발켄버그와 같이 사이트를 해석하고 디자인에 차용하는 방식의 장소 특정적 작품이 필요하다.

2. 조경의 역할: 예술과 사회적 서비스

<기울어진 호>로 인한 논쟁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의 공공성과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공공 예술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패러다임’은 모더니즘 조각으로, 보통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던 조각을 큰 규모로 재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작품의 크기나 스케일을 제외하면 ‘공공성’에 있어서 갤러리의 조각과 질적 차이가 없었다. 이들 작품을 공공 예술로 평하는 이유는 단지 작품이 외부 공간에 있고 공공장소에 있으며 작품이 개방적이고 물리적 접근에 제약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Kwon, 2002).

마사 슈왈츠는 “광장을 둘러싼 빌딩이 흥취하기 때문에 광장에서 점심을 먹거나 잠시 나온 이용자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왜 예술이 일상을 넘어서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했다. 공공 예술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대중이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Schwartz and Richardson, 2004)라고 하였다. 마사 슈왈츠는 공공장소의 조경에서 기능과 예술 간의 균형을 잡는데 일조하였다.

마이클 반 발켄버그의 광장은 가장 충실하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개성이 부족하다. 조경가 반 발켄버그의 설계를 통해 폴리 스퀘어 플라자는 도시의 어디에나 있을 법한 요소들로 구성된 평범한 광장이 되었다.

조경은 기능적으로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고 심미적으로는 예술로 작용해야 한다. 폴리 스퀘어 플라자의 사회적 서비스만 강조된 조경은 몰개성하고 예술만 강조된 조경은 불편하다는 점을 예측해 준다.

3. 조경에서의 이용자

리처드 세라는 <기울어진 호>를 구상하고 설치하면서 이용자를 단지 통행량, 즉 양으로 판단하였다(Levine, 2002). 마사 슈왈츠는 이용자의 니즈를 고려하고 작품에 반영하였지만 이용자보다는 작품이 갖는 예술성을 더욱 중시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기능보다 미가 우선시되는 디자인을 하였다. 그러나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하는 슈왈츠의 디자인은 정작 깊이 있는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하였다.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도시 내에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였음에는 이의가 없지만, 비효율적인 동선과 의미 없는 형태, 공간의 활용 등과 같은 이용자를 고려한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마이클 반 발켄버그는 이용자가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고려하였고,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공감각적 경험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경 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공감각적 경험을 하도록 한다.

조경설계에서 이용자는 단지 공간을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간의 주체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한 설계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이 높아지고 설계된 공간은 도시 내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V. 맺음말

폴리 스퀘어 플라자의 지난 45여 년을 주요 작가인 리처드 세라, 마사 슈왈츠, 마이클 반 발켄버그의 광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리처드 세라의 미니멀리즘 조각에서 마사 슈왈츠의 팝아트적 조경, 끝으로 마이클 반 발켄버그의 이용자친화적 조경가

지의 변화를 통해 대중이 요구하는 광장의 모습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기울어진 호>는 그 자체로 예술성이 가장 높으며 작품을 통해 장소의 성격을 바꾸고자 한 적극적인 작품이었지만 대중을 단지 양으로만 판단하고 불쾌감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공공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았으며 결국 철거되었다. 공공 장소에서의 예술품은 공공 장소가 갖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 작품인 마사 슈왈츠의 조경 작품은 이전의 <기울어진 호>와는 반대로 이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이지만 기능보다는 예술성에 초점을 두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과 공간에 비해 이용자가 너무 적어 오히려 황량해 보이는 광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공 장소의 기능에 적합하고 이용자 또한 고려하였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고 오히려 예술성에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장소 특정적이지도 않고 겉보기에 예쁘기만 한 작품이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반 발켄버그는 장소 특정성에 대해 가장 많이 연구하고 디자인에 반영한 작품이다. 이용자에 대한 고려와 도시 내 광장이 갖춰야 할 보편타당한 모습을 잘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예술성이 돋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이클 반 발켄버그의 디자인은 이전까지 조경이 도시 내에서 담당해온 역할 면에서는 가장 교과서적인 접근과 해답을 찾은 작품이다. 하지만 해당 작품은 폴리 스퀘어 플라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기 좋은 조경 설계로 모두 봉합하였다. 반 발켄버그의 광장은 <기울어진 호>가 야기한 공공성과 작품성의 충돌, 마사 슈왈츠의 작품에서 제기된 효율적 디자인, 이용자의 경험에서 나온 크고 작은 문제를 면밀한 사이트 해석과 보기 좋은 조경으로 덮어버렸다. 이 작품은 잘 설계되었지만, 장소의 특별한 역사를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었다.

조경은 그 캔버스가 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하나의 예술인만큼 조경 설계는 장소가 지니는 특징을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장소가 갖는 특징만 고려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경우 마이클 반 발켄버그의 디자인처럼 장소의 특별한 의미마저 봉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기 좋게 장식하는 조경이나 논쟁을 잠식시키기 위한 조경이 아니라 공간의 특성에 예술적 가치를 더하는 조경이 요구된다.

-
- 주 1. 기존의 연구에서는 광장 앞의 건물 이름인 제이콥 케이 자비즈 빌딩 (Jacob K. Javits Building)을 사용하여 제이콥 자비즈 플라자(Jacob Javits Plaza) 혹은 소유자인 연방정부와 인접한 도로 이름을 뜻하는 페데럴 플라자(Federal Plaza)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광장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부여한 공식 명칭인 폴리 스퀘어 플라자(Foley Square Plaza)라고 한다.
 - 주 2. 제이콥 자비즈 빌딩과 제임스 왓슨 빌딩은 알프레드 이스턴 푸어 (Alfred Easton Poor), 칸 앤 제이콥(Kahn & Jacobs), 에거 앤 히긴스(Eggers & Higgins) 총 세 개의 건축회사가 건설하였다. 이 건축가 중 한 명인 이스턴 푸어는 “건물 완공 당시 건물 앞에 조각품이 설치된다면 스틸이나 동을 사용한 미니멀리즘 조각 작품이 가장 적합하다”는 조언을 하였다(Serra and Clara, 1991).
 - 주 3. 연방정부는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 적합한 작가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NEA는 리처드 세라를 추천하였다 (Levine, 2002).

참고문헌

1. 문희숙(2012) 장소 특정적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포천아트밸리 환경조형물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pp. 55-62.
2. Kwon, M.(1997) One after another: Notes on site specificity, October 80: 85-115.
3. Kwon, M.(2002) One Place After Another: Site-Specificity and Locational Identity, Massachusetts: MIT Press.
4. Levine, C.(2002) The paradox of public art: Democratic space, the Avant-Garde, and Richard Serra's tilted arc, *Philosophy & Geography* 5(1): 51-68.
5. Marcus, C. C.(2000) Can there be too much seating? A day observing Jacob Javits plaza reveals many seats, few takers, *Landscape Architecture*, 90(2): 132.
6. Serra, C., M. Buskirk and R. Serra(1990) *The Destruction of Tilted Arc: Documents*, Massachusetts: MIT Press.
7. Schwartz, M. and T. Richardson(2004) *The Vanguard Landscapes and Gardens of Martha Schwartz*, London: Thames & Hudson
8. www.gsa.gov